

전남·제주 교사, 기억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힘 배우다

여순 10·19사건 사적지서 평화·인권·역사 교육 실천 방안 모색

전남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2·13일 여순 순천 10·19 유적지에서 전남·제주 교원들이 함께하는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성찰하는 평화·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남 교사, 제주 교사,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해 여수와 순천 일대의 여순 10·19사건 주요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장 강의와 토론, 수업 사례 나눔 등을 진행했다.

참여 교원들은 일제강점기 군사기지, 해방 이후 지역 사회의 갈등과 저항, 그리고 국가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이를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전남 교사들과 함께 제주에서 제주4·3을 주제로 한 현장 연수를 제주교육청과 공동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그 연장선에서, 제주와 전남이 각각 겪은 비극적 역사를 서로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운영돼, 현장 수업 적용을 넘어 학교 교육과 정책 차원의 실천까지 논의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수에 참여한 한 제주 지역 교사는 “제주 4·3을 공부하던 우리가 이번에는 여순 10·19의 현장에서 보니, 당시 국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결코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남 선생님, 교육전문직원들과 함께 수업 사례를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어떻게 책임 있게 전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단순한 과거사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육으로 확장해 해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 3일,



제주 4·3과 함께하는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 여순항쟁탑 앞에서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발생한 불법계엄 시도가 시민과 헌법 질서에 의해 실패로 끝난 경험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교육을 통해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과거 국가 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를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기 위함”이라며 “제주 4·3과 여순 10·19를 함께 배우

는 이번 연수도 12·3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간 연계를 통해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역사 속 갈등과 희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나눔하나 행복둘’ 김장김치 나눔 담그기

12월 15일 (사)나눔하나 행복둘(이영순 이사장)은 광산구북문로 황금푸줏간(대표 홍병욱)에서 행복 두배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하였다.

오늘 행사는 ‘(사)나눔하나 행복둘’ 회원들 20여명이 행사에 참여 하여 김장 담그기한 김치 200kg(40박스)를 지역 어려운 이웃에 떡국대와 김과 함께 나눔봉사를 하였다.

‘(사) 나눔 하나 행복 둘’은 20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주민들 남·여 8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로 설립되어, 인간 존엄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매월 2회 독거노인 및 요양원에 반찬나눔과 생필품 후원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의 문제는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우리 이웃과 사회가 풀어야 할 공동

의 관심사이며, 아직도 절대 빈곤의 끝에 내몰린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나눔하나 행복둘’은 노인을 공경하고 지혜로운 선진사민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경로효친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하는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사랑, 봉사로서 지역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남광산구의회 의장인 이영순 이사장은 말을 하고 있다.

‘(사)나눔하나 행복둘’ 회원들의 봉사가 저무러 가는 2025년 12월 한해를 보내며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의 정이 넘치는 것 같다. /김준행 기자

강진-진도 산림조합 3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기부

강진군산림조합과 진도군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지난 11일 진도군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210만원을 상호 지역에 기부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윤길식 강진군산림조합 조합장, 허용범 진도군산림조합 조합장이 참여하여 각 조합 임직원 20여 명의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첫해부터 3년 연속으로 두 지역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윤길식 강진군산림조합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로 강진과 진도의 신뢰와 연대를

재확인했다”며 “두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동참해주신 윤길식 강진 조합장님, 허용범 진도 조합장님과 산림조합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붉은 말피의 해에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등에 소중한 기부금이 잘 쓰이도록 맡겨달라”고 말했다.

강진/순경설 기자



김동주 제63대 전남지방우정청장 취임



김동주 제63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12월 13일 취임했다. 행정고시(4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동주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바이오나노과장,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금융총괄과장·예금사업단장 등 다양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동주 청장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응원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우정사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민에게 차별없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순천시, 마을교육과정 ‘따순마을학교’ 수료식 개최

수료생 33명, 마을 변화를 이끌 새로운 씨앗으로 성장

순천시는 지난 12일 저전나눔터에서 ‘2025 따순마을학교 수료식’을 개최하고, 마을활동가 17명과 마을공동체 16개 팀의 수료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된 따순마을학교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인 ‘따순마을 큰잔치’와 함께 진행됐다.

따순마을학교는 마을을 배우고 마을에서 실천하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올해 처

음 마을활동가 과정과 마을공동체 과정을 연계해 운영됐으며, 교육과정은 이론·조작·실무·대외협력·비전 수립 등 역량지표를 중심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총 16회차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료식은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참여와 따순마을 운영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과정별 수료증 수여, 수료 소감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증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성실

히 이수하고 과제를 제출한 시민과 공동체에 수여됐다.

마을활동가 과정 수료자는 총 17명으로, 마을의제 발굴, 마을자원 조사, 공모사업 기획, 주민자치 이해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히며 향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쌓았다.

마을공동체 과정에는 26개 공동체가 참여해 이 중 16개 공동체가 수료했으며,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과정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강의 중심 교육을 넘어, 각 마을과 공동체가 스스로 마을 비전과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참여형 학습 방식으로 운영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는 따순마을학교의 취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오늘의 수료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마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따뜻한 출발점”이라며 “수료생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며 순천형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경성인 기자



보성군 보성읍, 저소득층 아동 ‘바삭바삭 행복 쿠폰’ 지원

아동 48가구에 치킨교환권 전달,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응원의 선물

보성군 보성읍은 15일,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위원장 안재섭) 주관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 48가구에 ‘바삭바삭 행복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정서적 위로와 따뜻한 추억을 전하고, 연말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쿠폰’은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치킨교환권으로, 연말 가족들 간의 유

대감 형성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는 대상 가구에 치킨교환권을 직접 전달하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의 연말 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의 돌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읍 희망드림협의회 안재섭 위원장은 “행복쿠폰은 치킨교환권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보다 큰 응원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향해 가장 먼저 다가가는 든든한 이웃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아이 한 명의 웃음을 지키는 일이 한 마을의 힘을 키운다.”라며 “희망드림협의회와 함께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라날 수 있는 보성읍, 아이들의 행복을 온 마을이 함께 지켜주는 보성읍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은기 기자